

"정보보호 표준화" 특집호 발간에 즈음하여

2019년 12월 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많은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 삶의 패턴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소통의 방편도 바뀌어 가고 있다. 그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간적으로는 이점을 갖고 있지만, 시간적, 감성적, 인지적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다.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상대방이 듣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공감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시간적인 피드백이 없어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된다. 이렇게 비대면 측면에서의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이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또한 대면 측면에서의 조력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데, 국제 백신여권(Vaccination Certificate)에 대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국내에서도 백신접종 온라인 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COOV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증빙을 하고 있으며, 어플을 무료 공급을 통하여 글로벌 패스인프라 구축과 이를 통한 표준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실 표준화적 추진을 진행 중에 있다. 백신 여권 관련 국제표준화와 관련하여 ITU-T는 SG16, SG17, SG20과 WHO가 협력하여 2021년 8월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향방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글로벌 산업에서의 표준화 경험은 기술보다 표준 선점이 시장을 주도하며, 믿을 수 있는 표준이 시장을 창출하며, 국가의 표준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논문, 특허 및 표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문은 학문적 주장이나 가설을 절차에 맞추어 이론적 논증을 통한 검증을 펼쳐가는데 개별화된 특징을 갖는다. 특허는 발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인데, 기술의사유화하는 특징이 있다. 표준은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통일규격 또는 산업적 기준으로 기술보급 및 선점하는 다자화 그리고 공유화하는 특징을 갖는다. 웹을 통한 정보의 공유와 산업의 반독점 원칙과 WTO/TBT(1995년)를 고려할 때 표준화는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념단계에서 바로 시장을 선점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러므로 표준화가 동반되지 않은 기술 혁신은 성장에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표준화 활동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5월 20일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법률 개정이 되어, ‘표준’도 국가 R&D 성과로 인정되게 되었다. 이는 논문, 특허처럼 R&D 성과측정(NTIS)에 표준도 주요 지표로 편입되었으며, NTIS는 2021년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2년부터 표준성과에 대한 정보서비스가 개시 예정이다.

본 특집호에서는 국내 정보보호 표준전문가들의 주요 활동무대인 ITU-T SG17 (Security), JTC 1/SC27 (Information security, cyber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ISO TC307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등 국제표준화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ITU-T SG17에서는 안전한 양자통신 관련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ISO/IEC JTC1/SC27에서는 개인정보보호 표준화와, ISO/TC 307에서는 플랫폼, 탈중앙 신원관리, 스마트 계약 및 거버넌스 분야로 표준화가 집중되고 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원고를 집필해 주신 집필자분들과 편집에 수고해 주신 학회지 편집 위원회, 그리고 학회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8월

ETRI 정보보호연구본부 전문위원 나재홍

